

# 윌러스 스티븐스 시의 현상학적 접근

최 병 천 \*\*

## 차 례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 론

## I. 서 론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시는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을 연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이미 하인즈(Thomas J. Hines)를 비롯한 리들(Joseph N. Riddel), 골딩(Alan Golding)등과 같은 비평가들이 스티븐스의 작품을 후설의 현상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개의 비평이 『질서의 개념』 이후 중기시(中期詩), 또는 후기시(後期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중기시 이후 스티븐스 시의 철학적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인즈는 『윌러스 스티븐스의 후기시』(*The Later Poetry of Wallace Stevens*)에서 철학자로서의 스티븐스와 시인으로서의 스티븐스를 설명하면서 “스티븐스에 대한 비평가들의 철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Hines 19)고 역설한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인 관심사로 스티븐스 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Hines 20)는 것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학이 철학의 한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후설(Edmund Husserl)의

---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 교수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이라는 작품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36년 제 2차 세계대전 중 프라하에서 행한 강연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근대 서구문명의 근원에 대한 비평으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래 현상학은 한낱 표상에 불과한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하나의 철학 체계, 또는 철학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후설 이후의 일이다.

후설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적 삶의 이상(理想)은 더 이상 신화나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다가오는 현실의 투명한 리얼리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명한 리얼리티는 믿음이나 권력에 근거하는 이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는 인간의 정신 또한 투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때 생생한 리얼리티는 인간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대로의 현상세계를 인간의 의식 앞에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적 삶이 좀 더 진실된 리얼리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모든 이론 체계에 대한 해석을 보류해야 한다.”(Husserl 90-91). 이러한 해석의 보류를 통해 인간 앞에 나타난 현상이 그 자체로서 다시 탐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의 구체적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현상 그 자체가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의식과 결합되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설은 여기서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식 앞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Husserl 92). 이러한 인간 의식의 지향성은 현상이 인간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은 선험적이고 직관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험적 의식은 일상적인 인간의 의식에서 벗어난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선험적 의식은 인간에게 현상이 나타나는 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식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스티븐스의 시는 이와 같은 후설의 현상학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전달한다. 스티븐스는 후설처럼, 단순히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리얼리티가 지배되는 전통을 거부한다. 리얼리티는 정화되고 순화되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스티븐

스 시가 가지는 해체의 속성은 바로 후설의 판단중지처럼 기존의 이념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의식과 리얼리티를 통합하려는 지향성의 원칙은 스티븐스에게 있어서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결합이라는 시적 태도와 맞먹는 것이다”(Hines 31-32). 이러한 리얼리티는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며, 인간의 의식은 다시 투명한 리얼리티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스티븐스의 중기시 “푸른 기타를 가진 남자”는 이러한 현상학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 남자는 기타에 몸을 구부리고 있다.  
그저 그런 재단사. 그 날은 초록색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당신은 푸른 기타를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연주하지 않는군요.”

그 남자는 대답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은  
푸른 기타 위에서 변합니다.”(*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 165)<sup>1)</sup>

The man bent over his guitar,  
A shearsman of sorts. The day was green.

They said, "You have a blue guitar,  
You do not play things as they are."

The man replied, "Things as they are  
Are changed upon the blue guitar."

화자는 사람들로 부터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 리얼리티를 연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러나 리얼리티 세계와 푸른 기타에 대해 알고 있는 남

1) 이후 *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는 CP로 약칭한다.

자는 리얼리티를 정확히 기타 속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 하면 리얼리티는 수많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기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변화의 세계를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가 있는 세계는 그 자체 정지되어 이를 말이나 연주를 통해서 묘사한다면 이내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가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규정화된 하나의 작품이나 음악은 허구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녹색”의 현실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푸른 기타”와 마주 쳤을 때, 음악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된다. 즉, 리얼리티세계가 인간의 경험세계에 들어오면, 이를 느끼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리얼리티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리얼리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항상 변하며, 이를 맞이하는 인간의 상상력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Riddle 15). 따라서 푸른 기타의 연주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푸른 기타를 연주하는 화자처럼 스티븐스는 이와 같이 고정된 의식 내지는 전통을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스티븐스의 의도였다. 그는 이를 『필요한 천사』(*The Necessary Angel*)<sup>2)</sup>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물체와 모든 물체의 특질은 수많은 진동과 움직임과 변화 속에서 스스로 융해된다. 진동하고 움직이고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해답은 없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우주에 펼쳐져, 단단하고 고정된 물체의 집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 때문인데, 이 지성은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을 제공해 준다.(NA 25)

인간의 “지성”은 신과 자연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체제를 강요한다. 비록 이러한 대상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단하고 고정된 물체”로써 인간에게 다가온다. 여기서 스티븐스는 모든 세상의 진실이란 이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현상학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후 *The Necessary Angel*는 NA로 약칭한다.

## II. 본론

후설의 현상학이 보여주는 리얼리티는 바로 스티븐스의 시에 나타나는 리얼리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후설이 주장하는 현상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리얼리티 자체에 대한 투명한 접근에서 시작한다. 즉, 리얼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신화나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사물자체에 대한 인간의 투명한 의식활동이라는 것이다(차인석, 43). 스티븐스의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이 사물에 대한 “정신활동”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초기시에서 보여주었던 리얼리티의 해체를 통해서 사물 그 자체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현상학은 초월적 신념체계에 대한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거나 소박한 의미에서의 신념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고정된 틀 속에서 ‘객관성’이라는 이름아래 이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의 현상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리얼리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니힐리즘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신구현, 64). 즉, 현상학은 어떤 고정된 틀 속에서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산출해 낼 수가 없으므로 일상 세계의 리얼리티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후설은 진지한 진리와 의미를 괄호쳐 놓고 그 주변에 머무는 방식을 선택한다. 즉, 그는 사물의 본질이 판단중지(epoche)에 의해 잠시 유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괄호쳐 놓는 방법을 선택한다(Husserl 80). 그러나 판단중지는 어떤 사물에 관한 진술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일상적인 판단을 배제하거나 그 타당성을 일단 괄호 안에 묶어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은 근대 이후 자연과학이 사물을 수학적, 기하학화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현실세계는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Husserl 82). 그는 일상적인 리얼리티라는 입장에서는 먼저 사물의 근원이 되는 원소가 있고 이것들을 담는 그릇이 있지만, 수학적 입장에서는 먼저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 담길 내용 혹은 사물의 근원을 차후에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학적 개념이 우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그릇의 형성에는 원소의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릇을 형성하는 조건이 우

선한다. 원소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그 조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한에서 비로소 그릇의 원소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릇 내에서 원소들은 그의 고유한 의미나 자기성 내지 주체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수확화하는 과정은 결국 리얼리티 그 자신의 고유성 내지 주체성이 침식당하는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스티븐스의 시는 어떻게 보면 이처럼 자연과학에 의해 규정되어 침식된 리얼리티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티븐스는 여기서 인간의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새로운 결합을 모색한다. 그는 상상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살아있는 창조적인 정신능력이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NA 150)이라고 설명한다. 즉 상상력을 통해 전통의 틀에 의해 혼돈된 리얼리티를 해체하고,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인식함으로써 상상력의 주체인 인간은 객체인 리얼리티와 새로운 관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맨스에 대한 재진술”(Restatement of Romance)은 이와 같은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결합에 의한 현상학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스티븐스의 대표적인 시이다.

밤은 자신의 노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나인 것처럼 밤은 밤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각할 때 나는 내 자신과 너를

가장 잘 지각한다. 우리 둘만이 서로의 속에서  
 각자가 주어야 할 것을 주고받는다.  
 우리 둘 만이 하나다. 너와 밤이 아니고,

밤과 나도 아니고, 너와 나 만이  
 그렇게 외롭고, 단들이 아주 깊게,  
 일상의 고독을 넘어 아주 먼 하나이다.

그 밤은 우리 자아들의 배경 일뿐이며  
 그 분리된 자아들에게 서로 최고의 진실이다.

각자가 타인에게 던지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CP 146)

The night knows nothing of the chants of night.  
It is what it is as I am what I am:  
And in perceiving this I best perceive myself

And you. Only we two may interchange  
Each in the other what each has to give.  
Only we two are one, not you and night,

Nor night and I, but you and I, alone,  
So much alone, so deeply by ourselves,  
So far beyond the casual solitudes,

That night is only the background of our selves,  
Supremely true each to its separate self,  
In the pale light that each upon the other throws.

“밤은 자신의 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밤”을 인격화시켜 낭만주의적 초월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좌절된다(Schmidt 75). 밤은 초월주의적 개념에 의해서 정초(定礎)되어진 리얼리티가 아니다. “밤”은 현실 속의 밤, 즉 “너”로서 지각되어야 한다. “밤”은 인간의 의식인 “나”에 의해서 “나”와 교감을 이루면서 현실 속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너”로서 인식되어야 한다(Sexson 76). 그러나 “너와 나”는 서로서로 지배하거나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는 “각자가 주어야 할 것을 주고받는다.” 고정되고 초월적인 “밤”은 현실에서 사라지고, “너와 나”는 각자 교감을 주고받으며 “하나”, 즉 독립적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너와 나”의 관계는 후설의 철학에서 보여주는 판단중지와 괄호를 연상시킨다(Schmidt 106). 즉, “밤”의 수학적인 규정을 잠시 보류하고 인간의 의식과 교감을 이루는 “너와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드러나게 하며, 바로 여기서

현실적인 리얼리티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나”에 의해서 설정된 “밤”은 “나”의 상상력과 “너”의 리얼리티에 의해서 상호 교감하는 서로 “하나”인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감은 서로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가능성이 암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얼리티와 상상력과의 교감은 스티븐스의 시에서 대개는 이를 수 없는 허구로 등장한다. “두개의 배에 대한 관찰”(Study of Two Pears)은 이와 같은 교감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는 사물이 본질로써 인식되었을 때의 모순된 분위기를 지적하고, 사물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정물.  
배는 비올라도,  
나체도 병도 아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닮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 쪽으로  
기울어 부푼 곡선으로 만들어진  
노란 형체이다.  
그들은 약간 빨갳다.

.....

배의 그들은  
녹색 천위에 얼룩이다.  
배는 관찰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보이지 않는다.(CP 196-197)

Opusculum paedagogum.  
The pears are not viols,  
Nudes or bottles.  
They resemble nothing else.



They are yellow forms  
 Composed of curves  
 Bulging toward the base.  
 They are touched red.

. . . . .

The shadows of the pears  
 Are blobs on the green cloth.  
 The pears are not seen  
 As the observer wills.

“배”가 정물화 속에 사물처럼 놓여있다. 그러나 다른 사물, 즉 인공적인 “비올라”나 “나체”, “병”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다른 사물들과는 달리 정물화 속에 놓여진 배는 관찰자의 의식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노란 형체”로서 “약간 빨갱다.” 현실적인 “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Burney 98). 이와 같이 자연 속의 리얼리티는 관찰자의 의식과 합일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배의 현실적 형체의 묘사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수록 배의 정물은 “빨갱”게 변하면서 점점 더 배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다(Leggett 126). 배는 이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와는 무관하다. “관찰하는 사람”의 “의지”는 사물의 리얼리티와 결합할 수 없어서, 단지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Burney 98). 훌륭한 그림은 소재가 된 대상과 화가의 상상이 가장 잘 결합되었을 때 가치를 얻게 되지만, 스티븐스가 이 시에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그림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시인의 사상과 정물의 배는 관찰자의 눈에 비쳐졌을 때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모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티븐스의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리얼리티 사이의 완전한 합일이란 사실 불가능하다. 인간적 상상력이 완전히 배제되고 리얼리티를 완전히 해체시킨 “눈사람”의 세계를 맞이하든지, 상상력에 매달려 현실세계를 포기한 유아론자적인 입장의 “훈의 광장에서의 차축제”의 화자가 되든지, 대부분의 스티븐스의 시에서 처럼, 그 어느 쪽이든 그의 궁극적 리얼리티의 탐색은

좌절로 끝난다(Kermode 264). 이들 두 시에서 제시된 두 세계, 즉 추상화된 리얼리티세계인 “눈사람”의 세계와 상상만의 세계인 “훈의 광장에서의 차츰제”의 세계가 결합할 가능성을 스티븐스는 지속적으로 시도하지만, 이와 같은 통일적 세계는 스티븐스 시에서 미완성의 명제로 남는다.

『풍금』에 수록된 이들 두 시는 앞장에서 리얼리티의 해체의 예로서 논의되었지만, 바로 이 둘을 합치는 작업이 스티븐스의 중기시의 과제였다. 그러나 그 합치는 작업은 현실세계와의 관계성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고집하는 기존의 전통은 해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그릇된 리얼리티는 상상력을 억압해 지상의 삶을 통제한다. 인식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하는 그릇된 현실을 해체한 후, 새롭게 상상된 리얼리티(newly imagined reality)(NA 34)는 기존의 그릇된 리얼리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어떠한 고착화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따라서 상상의 리얼리티는 현실 속에서 현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즉, 리얼리티세계는 인간적인 개념과 의미를 모두 해체시킨 차가운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도 없는 외부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현실 위에 상상력이라는 빛을 비춤으로써 그 현실을 보다 인간적이며 시적인 현실로 재창조해 내는 것이다(Sukenick 16). 이처럼 리얼리티와 상상력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는 리얼리티만의 세계도 아니고 상상력만의 세계도 아닌 현실적 상상력의 세계, 즉 상상적 리얼리티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가 “플로리다에 작별을 고하며”(Farewell to Florida)에서 화자가 찾고 있는 세계이다. 플로리다의 열대가 만들어 낸 풍요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구조들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런 구조가 인간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플로리다의 풍요는 그런 질서와 화합의 산물이 아니다. 이를 체득한 화자를 통해서 스티븐스는 다시 한 번 북쪽의 추위가 상징하는 청정한 눈으로 전통적 구조를 깨뜨려 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처럼 스티븐스는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위해 북쪽을 찾는 화자를 통해서, 해체된 리얼리티와 상상력의 합일을 모색한다.

다시 자유롭기 위해, 이러한 인간들의 정신이며, 그리고  
 나를 동여 댈, 격렬한 정신으로 되돌리기 위해,  
 나를 데려가 다오. 안개 낀 갑판이며, 추운 곳으로  
 어서, 높은 배여, 어서, 데려가 다오.(CP 118)

To be free again, to return to the violent mind  
 That is their mind, these men, and that will bind  
 Me round, carry me, misty deck, carry me  
 To the cold, go on, high ship, go on, plunge on.

이 시의 화자는 리얼리티를 정화하고, 상상력을 재생하기 위해 “나뭇잎 없는 추운 북쪽(CP 118)”을 향해 떠난다. 그는 화려한 플로리다가 인간이 만든 관념으로 들어찬 무질서, 무의미의 세상임을 알고, 이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 북쪽을 향하는 것이다(MacLeod 49). 그의 북쪽은 “외부의 폭력을 막아 줄 내부적 폭력”(NA 36)의 “격렬한 정신(the violent mind)” 즉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이다. 과거의 진부한 현실은 북쪽으로 향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유로움”과 “우리를 동여 댈”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여기는 “차갑고(cold)” 정화된 리얼리티에 새로운 상상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나의 북쪽(my north)”은 플로리다의 무질서 함과는 다르게 “새로운 질서가 성취되어 인간과 세계가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리라고 기대되는 곳이다.”(Hines 37).

“플로리다에 작별을 고하며”에서 스티븐스의 화자가 무질서한 플로리다로부터 새로운 북쪽을 향하는 탐색은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모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스티븐스의 플로리다는 사물의 조건과 근거들이 들어찬 세계, 즉 하이데거가 배척하는 “과학적 사유(科學的 思惟)”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과학적 사유는 인간이 사물의 조건과 근거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그 사물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유이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서구의 역사는 이렇게 근거를 따져 묻는 사유가 스스로의 자유를 몰아내고, 리얼리티에 대해서 인간이 배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퇴락의 역사이다.(Heidegger 267).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리얼리티에 지배를 가하는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 즉, 온전한 세계에서는 리얼리티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인간의 정신 속에서 드러내며, 이때 상상력은 이러한 실재를 인식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보완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상상력과 리얼리티는 우위와 종속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섭하면서 합일을 모색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티븐스의 플로리다는 이러한 조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계이다.

하이데거 몇 편의 시 중 “저녁 산책”이라는 시는 스티븐스의 “플로리다에 작별을 고하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바다를 찾아 어둠에 잠긴 먼 강기슭 쪽으로  
 빛나는 은빛이 흘러간다.  
 여름에 지친 축축한 저녁 동산들  
 머뭇거리는 사랑의 밀어마냥 밤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달빛에 젖은 하얀 뽕죽지붕 사이  
 낡은 담 지붕 쪽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 하나,  
 아직도 발이 묶여 있고-----  
 환하던 여름날이 나에게 마련해 준 것  
 익을 대로 익어 늘어진 열매마냥 편히 쉬고 있거나  
 영원 또 영원에서 찾아와  
 의미 건너 쪽에서 버거운 짐이 되었으며  
 크나큰 단순 속  
 재색의 사막에 묶인 나에게로.(전광진 역 225)

지친 “여름”의 저녁은 화자를 숙박해서 그에게 “의미 건너 쪽”의 “버거운 짐”들을 드리운다. 스티븐스의 남쪽세상인 플로리다처럼 화자의 여름세상은 “익을 대로 익어 늘어진 열매”로 들어차 있어서 화자의 발을 묶는다. 수많은 열매들은 간직하고 싶은 과거의 열매가 되어 화자의 의식을 가로막는다. 또 다른 세상을 찾아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새처럼 화자의 발길도 가로막는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익을 대로 익은 열매”와 같은 전통적 은유나 사유에

대한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스티븐스의 시론과 닮은 데가 있다.(Hines 21-22)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사상은 “존재”와 “일상적 경험에 의한 존재자” 사이를 구분해서 존재를 재해석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의 의도는 “있다(존재한다)”라는 존재자는 궁극적인 존재와는 구별된다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리얼리티의 상황이 인간의 의식에 의해 상정됨을 보이는 데 있다(Heidegger 20). 하이데거의 이러한 리얼리티는 스티븐스의 현상학적인 리얼리티처럼 인간의 의식이 조우(遭遇)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수많은 양상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주로 그의 철학의 근원을 시간성에서 찾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매우 다양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일하고 불변하며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내재하는 존재는 없다는 사유로 나아간다. 단지 인간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리얼리티인 존재의 사건에 참여하고 응할 뿐이며, 존재자(인간)의 상황에 따라 존재는 다양한 형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Heidegger 246). 그러므로 그는 인생이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오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하이데거의 사상은 그가 『존재와 시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상학적 철학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시간성에 의해서 존재를 설명하려는 그의 철학은 인간적 시간, 즉 인간의 유한성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할 때, 인간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사물을 자신의 뜻으로 관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때, 단지 수단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못했던 사물들의 존재가 전혀 낯설게 인간에게 나타나고, 인간은 그러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 앞에 불들리게 된다. 즉, 이전의 인간이 사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두고 사물들을 이리저리 관찰하고 조작했던 반면에, 이제 인간은 사물들의 고유한 존재에 의해서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Heidegger 64).

이처럼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현상적인 모델은 스티븐스의 중기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Hines 22). 스티븐스의 시가

앞서의 언급처럼 인간의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교섭에 의한 구성이라고 볼 때, 하이데거의 철학이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과 리얼리티의 가변성은 곧 새로운 리얼리티의 탐색과 연결되는 것이다.

“키 웨스트에서의 질서의 개념”(The Ideas of Order at Key West)은 이와 같이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조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키 웨스트(Key West)는 앞 시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의 휴양도시이다. 여기서 한 소녀가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바닷가에 서 있다. 처음에 객관적인 외부 현실은 그녀의 감각을 통해 무질서한 인상들의 파편처럼 다가온다.

그녀는 바다가 헤아릴 수 없는 노래를 불렀다.  
바다는 순전히 육체 뿐인 육체처럼  
빈 소매를 펄럭일 뿐, 마음이나 목소리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방의 동작은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는 외침을 일으켰으나,  
그것들은 우리가 이해했어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바로 바다의 것이었다.(CP 128)

She sang beyond the genius of the sea.  
The water never formed to mind or voice,  
Like a body wholly body, fluttering  
Its empty sleeves; and yet its mimic motion  
Made constant cry, caused constantly a cry,  
That was not ours although we understood,  
Inhuman, of the veritable ocean.

인간의 의식은 바다의 리얼리티와 합일을 이룰 수 없다. 바다는 “빈 소매”가 펄럭이듯 인간의 상상력이 투영되지 않은 바다이다. 이는 “순전히 육체” 뿐이며 “비인간적인” 사물의 바다이다. 바다의 소리는 여인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리얼리티의 현실적 대양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여인의 상상력과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 줄 수가 없다(Riddel 111). 그러

므로 “끊임없는 외침”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바다의 것으로만 존재한다.

바다는 가면이 아니었다.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다.  
 그녀가 노래한 것이 그녀가 들은 것일지라도  
 노래와 바다는 혼성의 소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노래한 것은 한 마디씩 중얼거리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모든 말속에 부딪는 바다와 숨가쁜 바람이  
 요동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것은 그녀이지 바다는 아니었다.  
 (CP 128-129)

The sea was not a mask. No more was she.  
 The song and water were not medleyed sound  
 Even if what she sang was what she heard,  
 Since what she sang was uttered word by word.  
 It may be that in all her phrases stirred  
 The grinding water and the gasping wind;  
 But it was she and not the sea we heard.

“노래”와 “바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충되어 나타난다. 인간의 목소리인 노래는 바다의 리얼리티와 서로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체감도 보여주지 못한다(Riddel 111). 그러므로 비록 “그녀가 노래한 것이 그녀가 들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혼성”의 소리가 아니다. 노래 소리는 한마디씩 흘러나와 바다를 표현하지만, 바다는 모든 낱말들로 표현할 수 없는 리얼리티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는 사물로써 그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노래는 여인의 정신 속에서 형성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녀가 노래한 것, 노래하면서 만든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CP 130)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바다는 현실의 바다와는 거리가 멀다. 단지 그녀의 노래는 질서를 드러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양식일 뿐이다. 이와 같은 양식은

아무리 완벽해도 언어적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질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그녀의 노래는 현실 세계의 바다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결국 현실세계의 바다에 대한 노래가 될 수 없다(Carroll 64).

### Ⅲ. 결론

후설의 현상학에서 보여주는 지향성(intentionality)은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조화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지향성은 인간의 의식적 활동도 아니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아니다. 지향성은 의식과 물체가 서로 관계를 맺는 양자의 상호작용이다. 의식의 외부에 있는 물체는 투명한 상태에서 의식 속에 다가오고, 의식은 이를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인식함으로써 지향성의 양면을 형성한다(차인석, 57).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지향성의 개념은 상관적 리얼리티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향성이 순수한 객관세계와 이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주관적인 인식작용의 상관관계라고 본다면, 의식을 전제하지 않은 물체라든가 또는 물체를 전제하지 않은 의식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Husserl 101). 따라서 후설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식활동에는 리얼리티 그 자체가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는가하는 문제가 전제된다. 후설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원리, 즉 로고스를 탐구하며 이 탐구에 문자 그대로 현상학(Phaenomenologie)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후설의 이와 같은 현상학을 통해서 스티븐스의 중기시를 분석하려는 작업이 윌라드(Abbie F. Williard)나 베케트(Lucy Beckett)를 위시해서 밀러(Hillis Miller)나 블룸(Harold Bloom)과 같은 다양한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비평이 초기시에서 후기시로 넘어가는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몇몇 스티븐스의 시를 인용하여 이를 단편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스티븐스의 시를 전체적으로 관조하려는 독자는 그 비평의 난해함에 오히려 당황하게 된다.

스티븐스는 중기시 이후 후설의 현상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대상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교섭한다는데 관심을 갖는다(Sukenick 13). 즉, 현상학적인 연구결과가 30년대 이후의 스티븐스 시와 유사함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의 초기시에서 추구했던 해체적인 사실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중기시에서 화자의 의식은 지속적으로 리얼리티 세계에 투영되고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리얼리티는 정신과 서로 교섭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티븐스의 시는 이와 같은 현상적인 리얼리티가 인간의 상상의 “눈(eye)”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리얼리티와 상상력의 조화를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다(Sukenick 16).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사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고안된 세계(invented world)”(*CP* 380)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수용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비추고 재조정하는 등불과 같은 것”(Gray 89)라고 말한다. “등불”에 의해서 리얼리티는 수많은 그림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거울은 단지 현실을 모방해서 그 자체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 “등불”을 통해서 창조된 새로운 리얼리티로서의 세계는 “거울”에 비추어진 모방의 세계보다 한층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울”은 항상 고정된 리얼리티를 보여주지만 “등불”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느낌이 다르듯이 그 강도와 그림자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는 “등불”이 꺼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불완전한 세계이다.

스티븐스가 전통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냈을 때, 이처럼 새로 창조된 현상적인 리얼리티는 과거의 시인들이 부여했던 절대적 진리나 궁극적인 리얼리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현상의 인식을 통해서 그의 시 속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규정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처럼 사물이 개념화되고 규정되어 버리면, 즉 사물이 언어로 표현되어 고착화되면 이것은 또 다시 낡은 전통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거짓된 리얼리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후기시의 주요 모티프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허구는 과거의 전통이 건설한 신과 초월성에 대한 부정으로 생겨난 허구가 아니다. 이 허구는 긍정을 내포하는 허구이다.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는 현상적인 모습의 허구이다. 스티븐스가 찾는 궁극적인 리얼리티는 이와 같은 허구, 그 중에서도 시인의 상상력과 리얼리티가 가장 적절하게 결합된 최상의 허구이다.

인 용 문 헌

- Stevens, Wallace. *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 New York: Alfred A. Knopf, 1974.
- \_\_\_\_\_. *The Necessary Angel: Essay on Reality and the Imagin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 Burney, William. *Wallace Stevens*. New Have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1968. Publishers.
- Carroll, Joseph. *Wallace Stevens' Supreme Fiction: A New Romanticism*. Lond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7.
- Gray, Richard. "Poetry and the Subject of the Poem: Wallace Stevens," *Modern American Poetry*. ed. R. W. (Herbie) Butterfield. London: Vision Press, 1984.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Dr.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 Hines, Thomas J. *The Later Poetry of Wallace Stevens: Phenomenological Parallels with Husserl and Heidegger*.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76.
- Husserl, Edmund. *Ideas: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Translated by W. R. Boyce Gibson. London: Allen and Unwin, 1931.
- Kermode, Frank. *Wallace Stevens*. (Writers and Critics Series.)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0.
- Leggett, B. J. *Wallace Stevens and Poetic Theory: Conceiving the Supreme Fiction*.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87.
- MacLeod, Glen G. *Wallace Stevens and Company: The Harmonium Years*. Ann Arbor, Michigan: UMI Research Press, 1983.
- Riddel, Joseph N.(a) *The Clairvoyant Eye: The Poetry and Poetics of Wallace Steven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65.
- Schmidt, Richard. "Husserl's Transcendental-Phenomenological Reduc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0, 1959.

Sexson, Michael. *The Quest of Self in 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 New York and Toronto: Edwin Mellen, 1981.

Sukenick, Ronald. *Wallace Stevens: Musing the Obscur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London: U of London P, 1967.

신구현. 「현상학적 원인과 그 철학적 의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회 편. 서울: 심설당, 1983.

전광진 역. 『하이데거의 시론과 시문』. 서울: 심설당, 1983.

차인석. 「현상학에 있어서의 지향성과 구성」,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회 편. 서울: 심설당, 1983.

Abstract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Wallace Stevens'  
Poetry

Choi Byeong Cheon

Wallace Stevens believes that the singl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reality is the recognition that all propositions about reality disappear in an actual world. In this respect, Stevens does not see poetry as an imitation but as a creative force, because everything can be turned into a newly imagined reality in the poet's mind no matter what it is.

Reality in actual life transformed by the poet's imagination has various image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 and place, which contains not a permanent but a temporary reality. In that his poetry reflects his philosophy similar to that of Husserl and Heidegger,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Steven's poetry seems to be a feasible one. This study undertakes a comparison of the phenomenological ideas and Stevens' use of those ideas in his poems and thereby demonstrates keen affinities between them.

**Key words:** Wallace Stevens, reality, Imagination, Husserl's phenomenology, Intentionality

월러스 스티븐스, 현실세계, 상상력, 후설의 현상학, 지향성

논문접수일: 2008. 11. 24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이름: 최 병 천

소속: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 교수

주소: (402-752)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

전화: 032-870-2315

이메일: cbc@inhac.ac.kr